

solace.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소 - 이벤트 메시

이벤트 메시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실시간, 이벤트 기반 운영 체제를 구현하여 고객 경험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OT와 IT의 통합을 완성하며, 클라우드의 신규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실시간의 이벤트 중심 기반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비즈니스는 중요 이벤트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가올 이벤트를 예측하여 문제를 방지하고 기회를 십분 활용합니다. 이러한 효과적 대응은 시의적절성이 고객의 손에 달린 문제이며 이벤트 데이터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목표가 됩니다.

모바일 컴퓨팅, 기계학습 및 IoT 기술의 보급으로,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자체 환경, 고객 기반, 공급망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위적 활동, 자연적 기원, 소프트웨어 시스템, 장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벤트는 다양한 비즈니스 일선 현장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처리됩니다.

이벤트 중심이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디지털 이벤트로 전환하고 실시간으로 분산 시스템을 통해 이동시켜 애플리케이션(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과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면 운영 효율 개선, 의사결정 지원, 혁신의 촉진 및 고객 대응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벤트 주도형 아키텍처가 구동하는 방식이며 약속하는 효과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스템은 이벤트 중심의 실시간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IT 인프라는 정적 데이터와 일괄 처리 작업을 위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사람과 시스템이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야 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이러한 구식 시스템은 마찰을 일으키고 따라서 고객 경험을 저하시키게 되며, 비효율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게 됩니다.

많은 기업의 IT 팀은 이벤트 중심의 설계 패턴과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지만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구현의 효과를 보장하려면 다음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분산 구조의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알리는 방법
- 개발자가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설계, 설명 및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
-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 개발의 모범 사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데이터의 실시간 전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산업(항공, 금융 서비스 및 통신 등)의 경우, 많은 전통적인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실시간 데이터가 그러한 높은 비용도 감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한편,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현대적인 조직의 일부는 그 시작부터 이벤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직에 있어 레거시 인프라의 비중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많은 경우, 복잡성과 비용은 항상기대 효과를 초과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의 채택은 현실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보다 더 쉬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Solace의 이벤트 메시지가 제공하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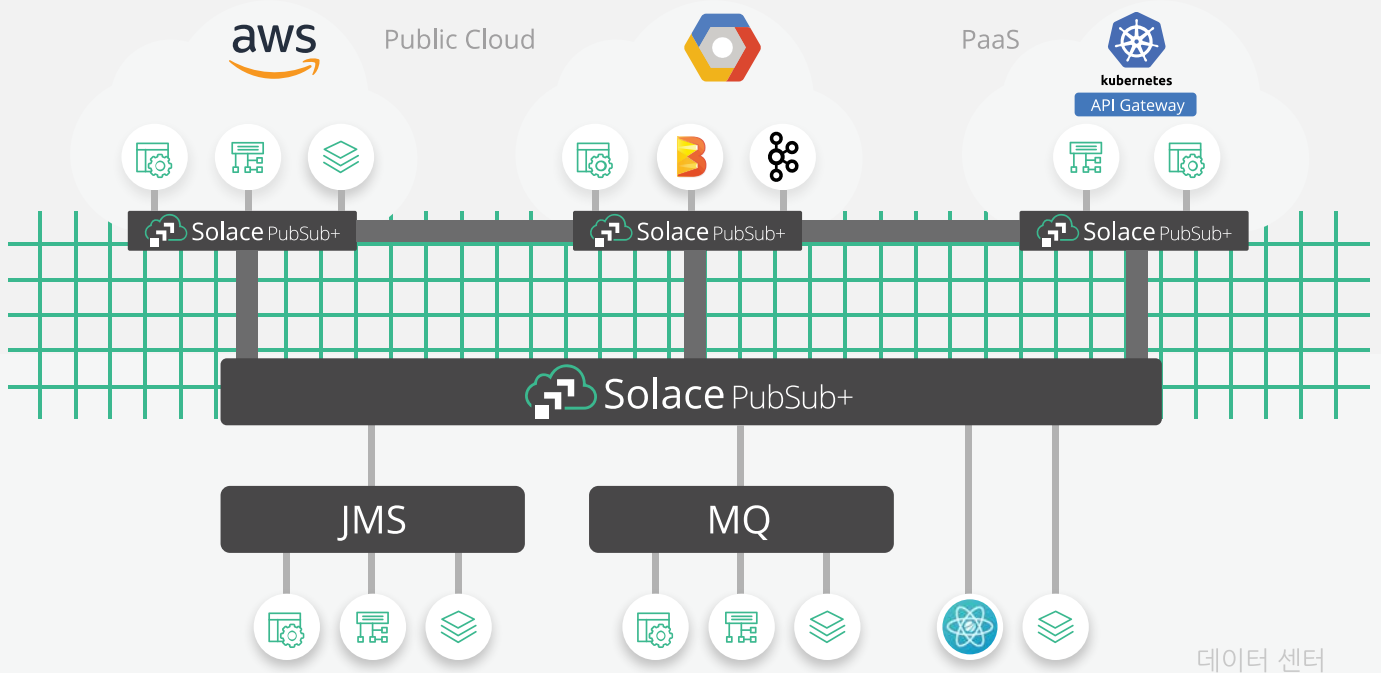
이벤트 메시는 실시간의 빠른 대응 체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

이벤트 메시는 관련된 시스템, 클라우드 또는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이벤트가 생성된 곳에서 소비되어야 할 곳으로 이벤트를 라우팅하는 인프라 계층입니다. 서비스 메시에 익숙하다면 이벤트 중심의 환경을 위해 설계된 메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벤트 메시는 환경 내에 또는 서로 다른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이벤트 브로커를 연결하여 생성되며, 결과적으로 연결된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가 하나의 로컬 이벤트 브로커에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상대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이벤트 알림을 수신하게 됩니다.

PubSub+로 구축된 이벤트 메시는 동적이고 개방적이며 단순하고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Solace PubSub+ Event Broker는 큐 처리, 요청-응답 및 스트리밍은 물론 게시/구독 메시징 패턴을 지원하는 고급 이벤트 브로커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PubSub+ Event Broker를 활용하여 생성된 이벤트 메시지의 특징:

- **동적 특성:** 자체 라우팅, 자체 학습 및 자체 치유를 통해 이벤트 생성 애플리케이션과 소비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자동화된 효율적인 이벤트 스트리밍을 구현합니다.
- **개방형:**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개방형 프로토콜과 API를 지원합니다.
- **단순성:** 단일 관리 콘솔을 통해 이벤트 메시지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 **호환성:**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AWS, Azure, GCP), 컨테이너 등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현대적 기업에 있어 동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업의 모든 요소와 환경에서 이벤트가 자유롭고 원활히 흐르도록 노력하는 기업은 더 빠른 혁신과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더 큰 성공을 달성합니다.”

- Shawn McAllister, Solace CTO

이벤트 메시로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실현

더 나은 의사결정: 올바른 데이터를 적시에 올바른 곳에 배치하여 분석을 개선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및 적절한 상황 인식을 유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에서 생성된 모든 이벤트에 대한 주문형 액세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고립된 데이터를 없애고 전체 IoT 에코시스템을 통합: 여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및 지리적 위치에 걸쳐 기존 및 신규 IT 및 OT 자원을 통합합니다.

비즈니스 및 IT 협업을 개선: 이벤트 및 이벤트 메시지는 비즈니스 리더와 기술 리더 간의 문화 및 언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 애플리케이션의 대응 속도를 개선하고 업무 중단을 제거합니다.

극도의 민첩성: 공급업체 및 기술에 대한 종속 방지, 서로 다른 기술의 통합, 단계적인 클라우드 전환 지원 등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비용 효율의 실현: 오직 필요한 데이터만 필요한 시점에 이동합니다.

Solace 소개

Solace는 비즈니스 운영과 고객 상호 작용을 이벤트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보다 민첩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합니다. 시장 최초이자 유일한 이벤트 관리 플랫폼인 PubSub+를 제공하는 Solace는 이벤트를 생성, 기록 및 발견하고 이벤트가 생산되는 곳에서 이벤트가 소비되어야 할 곳까지 스트리밍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빠르고 보장된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Solace 기술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전문가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본 시장, 소매, 게임에서 우주, 항공 및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며 20년에 달하는 전문적 경험을 구축하였습니다. SAP, Barclays and Royal Bank of Canada와 같은 기업, Renault와 같은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 Jio와 같은 혁신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및 IoT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 Solace 기술로 이벤트 메시지를 구축하여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최신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Solace 웹사이트(solace.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